

분류	주일예배 설교- 주일2부
제목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성경	로마서 16:9
일시	2010년 3월 7일
장소	임마누엘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이번 주간에 전세계 가족들에게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end)

♣**성경말씀 (로마서 16:9)**

0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 **요약 자료** ♣

☞**서론**

▶오늘날 경찰이 이해 안되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올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내야 한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쓰고 항상 쓴 단어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제일 많이 썼는가?

1.운명을 바꾸는 말이다→ 감사 회복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감사부터 회복하라. 정말로 감사가 시작되면 응답이 시작된다.
 (1)창1:27,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2)창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종교, 윤리, 선행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러다가 지옥가게 된다.
 (3)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게 된다.
 ▶인간이 안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1)롬5:8,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3장 문제 해결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길을 만드셨다. 짐칠 필요도 없고, 제사, 고사 지낼 필요도 없다.
 2)요1:12,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요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4)주의할 것- 사단은 아직도 살아있다. 구원받은 자가 흔들리도록 건드리고 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축복을 찾아 누리라.

2.신분도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오늘부터 이 신분을 쓰라.
 (1)창3:15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속에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가문의 모든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2)창6:14,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3)출3:18, 피 제사드리는 날 능력으로 역사, 위기 당했을 때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4)마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5)행1:1-14,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생명 길고 모였는데 최고 응답이 일어났다.
 (6)행2:1-47절에 일어난 응답
 (7)행11:19-30,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문이 열린다.
 (8)행13:1-12, 최초의 선교사 파송
 (9)행16:6-10, 마게도냐로 복음 증거
 (10)행19:21, 23:11, 27:24.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세계복음화 할만 큼 축복을 받을 것이다)

3.권세도 바뀌어 버렸다- 동역자의 축복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1)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몸이다.
 (2)전도자- 지도자와의 만남의 축복
 (3)전도를 아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4.결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최고, 최선, 최대를 향해 뛰어든다.
 (2)질병, 가난, 공부- 이것을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 들어가라. 그리고 조금만 기도 시작하라(하루에 5분만 진실하게 기도해보라. 증거온다).
 (3)영적 문제가 올수 있다. 고후12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면 증거가 온다.

♣ **독취 자료** ♣

☞ **서론**

▶오늘 제목을 자세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이다. 뉴스를 보니까 누가 집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죽였더라.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집에 있었는데 안경도 그냥 벗어놓고 나갔다고 하더라.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잠옷을 입은 채로 나갔다. 나간 게 아니라 잡혀간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경찰이 알지 못하는 영적문제 가진 사람이 많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자꾸 많아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답들이 다 나와 있다. 10년 전에 대구에서 아이들 4명을 누가 죽였다. 누가 그랬을 까하고 조사를 했다. 그것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아이들을 잡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나왔다. 우르바노와 스타구다. 별로 잘 모르는 이름일 것이다. 몰라도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현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 죽은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 충격일 것이다. 또 보니까 물탱크에 집어넣었다고 하던데 그 물을 받아 썼던 사람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나는 전에 집회가 있어서 마산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방을 잡았는데 보니까 방 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잠 자셨던 방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었다. 대통령이 왔으니까 기념으로 걸어 놨을 것이다. 그런데 침대에 누우니까 이상하더라. 이분이 죽기 전에 여기 와서 나처럼 똑같이 누웠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그 살해당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는가.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아니한 문제들이 올 수도 있다. 축복도 생각지 않은 것이 오지만 문제도 생각지 않은 것이 올 수도 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한다. 뭐가?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항상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이 썼느냐? 그냥 쓴 게 아니고 롬16장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 다 갖다 붙였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라. 그냥 누구에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 따르따로 다 썼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고, 재난을 피하질 못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림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왜 자꾸 사탄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축복을 못 깨달으면 어려움이 온다. 반대로 우리 레닌드들,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을 깨달아버리면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에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오늘 좀 설명하고 마지겠다.

▶ **본론**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제일 많이 썼는가?

1. 운명(감사)

▶운명을 바꾸는 굉장한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아이가 집을 나가면 살 수 있는가?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나와 아주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냥 없어졌다. 그것도 어릴 때 없어졌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어디 가서 안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 때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것도 어른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아이였다. 그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녔고 나보다는 어렸지만 친했었다. 저녁에 식사할 때쯤 데서 밖에서 친구들이 부르더라. 그래서 예사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답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길로 지금까지 안 온다. 아니 이상하지 차라리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는가보다 할 텐데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집도 별 좋은 집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혹시 울지도 모른다고 하며 이사도 안 간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참 많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운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갑작스러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부산에 내가 아는 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였다. 그분은 유명할 정도로 불교에 헌신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자다가 불이 나서 죽었다.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고 호텔에서 불이 났다. 이름을 말하면 알 정도로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부터 회복하길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정말로 감사가 시작되면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 창1:27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알 것이다. 창1:17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산 것이다.

(2) 창3장

▶그런데 창3장 사건을 보면 인간의 잘못이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게 창3장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도 못 가는 것이다. 여기서 율리를 아무리 지켜도 못 가는 것이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인간이 창3장 사건 이후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보고 운명에 빠졌다는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떨어져버렸다. 선행은 좋은 건데 여기서 선행을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인간은 망하는 운명에 빠졌다. 이러다 지옥에 간다. 틀림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도 인간에게는 결국 나중에 어려움이 온다.

(3) 오늘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다.

1) 롬5:8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롬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1:27을 다 회복하고 창3장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여시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축복과 기도를 받을 뿐 아니라 올라가기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해되는가? 그래서 혹시 새로 믿는 사람 가운데 전에는 곳을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고사를 지내도 여러분은 안 지내도 된다. 여러분은 지옥의 운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으로 와버렸다. 그런데 전에 운명 속에서 살던 사람은 짐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리(하나님 자녀의 자리) 와버렸기 때문에 짐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도 된다. 전에는 제사 지냈지만 이제는 제사지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2)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 요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운명이 끝 나버렸다.

(4)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창3장 사건을 뒤에서 살짝 만든 사탄은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지는 못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흔들릴까 싶어서 건드리는데 것이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한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불효자인가보다. 어째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드리는가?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면 아버지가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한다. 죽은 사람이 밥 먹던가? 차려놓으면 먹는가? 말쑥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걸 차려놓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먼지만 들어간다. 그렇게 해놓고 누가 먹는가? 자기들이 다 먹는다. 또 어디에 담아서 갖다놓는 것을 보이면 만만 것은 안 놓는다.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한 뒤에 자기들이 다 먹는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을 믿어먹는가? 절해놓고 뜯어먹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조상도 모르느냐고 한다. 미안하지만 조상도 아니다. 아니 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어서 오는데 그걸 제사를 지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아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조상 흉내를 징그럽게 내면서 찾아오는 것이다. 오히려 제사를 지내서 대접할 것이 아니라 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제사 많은 집이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제사 많은 집이 있는데 그건 귀신 총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런 데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 우르바노여, 그 말이다. 별 한 일은 없지만 이게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 누리길 바란다. 절쟁이가 말한 결과 같은 것도 아무 상관없다. 아니 다른 사람은 맞던데요? 불신자는 그 집이 맞는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다가 나중에 속인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5천년 동안 그렇게 했다. 나무는 깎아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나무를 보고 절했고 돌 같은 것을 깨서 계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돌을 보고 절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다.

2.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도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가만있으면 모르지 않는다. 기독교인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분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장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품 잡고 시청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냥 집에 가만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시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 목사님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묻지만 절대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이 살다보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한다. 교회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믿길 바란다.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된다.

(1) 창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신분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가문의 모든 어려움을 주었던 흑암권세, 뱀의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하고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쉬운 것이다. 아멘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아멘은 한국어가 아니다. 그대로 된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다.

(2) 창6:14

▶별망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이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여러분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 램넛트들은 지금부터 신앙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내가 여러분을 만난지 벌써 20년이 되어간다. 우리교인들 같이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없다. 내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본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진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식이다. 그 사람이 하도 그러기에 진짜인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 그리스도가 없어져버린다. 그리고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손해도 안 왔는데 손해가 올 것 같으니가 그랬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우리 다락방에서 같이 일하다가 나갔던 사람들이 거의 100% 그런 사람들이다. 너무나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임마누엘 교회가 최고고 시대적 종이라든지 오만 소리를 다 했다.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한가 진짜 복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하다가 약간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도 뭐고 없다. 램넛트들이 앞으로 크면서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는 다른 사람과 대화도 되어 되지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 램넛트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계산하지 말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다가 다 죽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만 하면 다 산다. 아니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지 방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나? 아니 온 땅에 돌아다니며 살아가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비가 엄청 와서 다 죽는다. 아니 멸절할 때 비가 왜 오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산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만든다고 미쳤대며 또 욕을 했다. 그러다가 역사에도 증거 있듯 노아시대 때 비가 너무 와서 다 죽어버렸다.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신분을 쓰지만 하면 된다. 안 쓰고 가만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다.

(3) 출3:18

▶성경을 보라. 피제사 드리는 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위기 당했을 때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말이다. 나의 상처와 질병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왕이 무슨 말이나 몰았다. 피제사 드리라 간다니 피제사가 뭐냐? 양의 피입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나? 그러면 양의 피를 드러라.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니까 무슨 소리냐며 미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재앙이 들어온다. 아니 바로 왕 앞에서 이 말을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가끔 두려움이 생기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마음속에 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4) 마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때 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만들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들을 것 없다. 시대마다 복음 증거하거나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단누명을 씌웠다. 어느 단체가 맞고 어느 교단이 맞느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복음을 바로 붙잡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축복받길 바란다. 우리 장로님들과 램넛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서울교회도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억지로 틀리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서울에는 장로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비진리를 할 때 두려워해야지 진리 앞에서 두려워할 것 없다. 혹시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 없다. 이때 마16:16만 붙잡으면 사는데 이단누명을 씌우니까 겁이 나서 못 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잘 보고 말씀만 붙잡아도 된다.

(5) 행1:1-14(생명)

▶듣기만 해도 응답이 온다. 행1:1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괜찮다. 기도하면 성령충만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길로 모였는데 최고응답이 일어났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다.

(6) 행2:1-47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행2장에 일어난 응답을 보라. 조금 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7) 행11:19-30

▶그냥 이 응답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행11:19-30의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선교의 문이 열린다.

(8) 행13:1-12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된 기록이 어디 있는가? 행13:1-12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정도로 응답을 받게 되어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라. 앞으로도 남아있다.

(9) 행16:6-10

▶마케도나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많은 문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10) 행19:21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 어디까지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세계복음화 할 만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움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말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새 주간에 신기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 듣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친구 따라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을 은혜로 부른 것이다. 가족 때문에 여기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3. 권세 - 동역자

▶세 번째로 중요한 말이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세가 바뀌어버린다. 전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 물어보자. 능력과 권세가 뭐가 다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 격을 딴 것은 능력이다. 능력은 있어야 한다. 시험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은 능력이다.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한다. 어느 날 대통령이 강철세 장로를 보고 당신 장관하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한다.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자, 이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말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1) 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바울이 말한 대로 저는 머리라하면 이 사람은 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몸이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분들이 합쳐져서 한 몸이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장로님 70명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뭉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으면 바로 끝나버린다.

▶우리 다락방 가족이 30만 명인데 예를 들어 만 명이라고 치자. 만 명이 한 달에 만원만 내면 얼마인지 아는가? 만약에 하나가 되어서 낸다면 우리 다락방의 램넛트들을 다 공부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안 돼서 그렇다. 참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어른이 만 명만 되겠는가? 만원은 아무리 바보라도 힘내면 낼 수 있다. 내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힘만 합쳐버리면 우리 램넛트들 다 공부시킬 수 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램넛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원네스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램넛트를 망치는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짜다. 다락방 30만 가족이 하나되면 RUTC는 금방 끝내버린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힘을 억지로 낼 것 없이 우리 부성만해도 교인이 몇 명인가? 전부 다 원네스가 되면 역사는 쉽게 일어나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절간과 모든 종교를 능가할 만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다.

암만 힘없어도 우리가 5년, 10년 장기로 잡고 모으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 한 몸, 동역이라는 말이 이 말이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가 몇 개인가? 5백개가 넘는다. 이 교회들이 조금만 우리 미자립교회 돕자고 작성하면 차비도 없어 못 다니는 목사님들이 도움을 얻는다. 이걸 한 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놓치는 축복이다. 힘이 든다는 것은 많이 할 때 힘이 드는 것이지 이걸 많이 할 것도 없다.

다락방 5백개 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돕자고 하면 간단해진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놓친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말을 아는가?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오늘 한번 대중 해보라. 집에 가서 망치로 손가락을 한번 찍어봐라. 며칠 동안 온 몸이 아플 것이다. 나중에 이게 일어나면 머리로 아프다. 이게 한 몸이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하나 되면 커 올라오는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흑암세력에게 진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 몸 중에서 제일로 행복을 누리는 부분이 어딘가? 입이다. 오만 것을 다 먹는다. 그러면 제일 수고하는 부분은 어딘가? 손, 발인가? 내가 볼 때는 제일 고통당하는 부분은 발이다. 이걸 양발을 신고 신발도 신고 숨도 못 쉬게 한다. 그러면 제일 수고하는 부분은 손이다. 일단 집어서 입에 넣어야 한다. 이게 한 몸이다. 그러면 손발이 함의를 해서 실컷 수고하고 입만 좋은일 시키니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하자. 그래서 안 먹어버린다. 안 먹으면 입도 편하다. 그런데 이걸 안 먹으면 제일 힘 빠지는 게 손발이다. 알아들었는가? 장로님들이 원네스 되면 교회가 어떻게 축복받느냐 차이가 난다. 다락방의 중직자 전부 다가 원네스가 되면 우리 램넛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각 교회들이 교회 짓거나 문화싸움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이 진짜 원네스가 되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2) 전도자 - 지도자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받은 축복이 뭐겠는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전도하는 전도자, 지도자를 만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인물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3) 제자

▶또 반대로 바울이 제일 받은 축복은 뭐겠는가? 그 시대에 전도를 알아듣는 제자를 만난 것이다.

▶이걸 보고 동역자라고 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로 어려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 가져가길 바란다.

▶ **결론**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결론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램넛트는 기억하라.

(1) 최고, 최선, 최대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최고, 최선, 최대를 향하여 뛰어든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교회가 수입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전부 본부로 보낸다. 나는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가 감사하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 여기 부산에서 전도운동이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전부 본부로 다 올리고 교회는 그냥 수고만 한다.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목사님, 장로님 등 이런 신앙이 좋은 분들이 난데없이 자꾸 이익을 보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참 잘못 받은 것 같다. 우리 램넛트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최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 최선, 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 램넛트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2) 질병, 가난, 무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뭐가? 몸이 약한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가난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또 우리 램넛트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공부일 것이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도 공부가 잘 안 된다. 이것을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조금만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부분을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에 5분만 진실하게 기도해 보라. 그러면 증거가 온다.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상관없다. 진짜 해보라.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또 길을 못 찾지 않는가. 내가 증인이다. 나는 시작할 때 우리학교 학생 중에서도 내가 제일 가난했다. 부산시내에 모인 목회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배경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간도 딱 정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된다. 그러면 응답이 온다. 틀림없다.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제일 기초를 놓친 것

이다.

(3) 영적문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영적문제이다. 이런 분들은 바울처럼 완전히 축복의 기회이다. 고후12:1-10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누리기 시작하면 증거가 일어난다. 나는 무당으로 몇 십 년 있었는데 자꾸 귀신이 괴롭힌다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얼굴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오면 기쁨도 생기고 편안함이 온다.

▶그러면 목사님은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 집회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비서들은 그냥 다니면 되지만 나는 또 메시지를 해야 된다. 다른 분들은 메시지를 하고 주무시면 되는데 나는 또 숙제를 해야 된다. 오늘도 보니까 책상에 숙제거리를 올려놓고 학원복음화 책을 써달라고 메모도 올려뒀더라.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계속 글을 써야 된다. 이걸 안 쓰면 안 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다락방에 월급을 받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2백명이다. 그 외에 돈을 받지 않고 헌신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꼭 있다. 전국 세계에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생각해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뒤에서 또 도와줘야 된다.

그런 중에 또 이상한 사람도 많다.

또 우리가 좀 잘 되면 뒤에서 시비거는 사람도 있다. 별 사람이 다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표정 관리한 것이 이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 인상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라. 그러나 나는 확신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건 강도 잃지 않고 살아왔다.

▶이번 주간이 우리 전 세계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주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새 증거를 보게 해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해주옵소서. 나의 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보는 새 힘을 허락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국	
① http://www.darak.net ② http://data.darak.net	
총 국 장 :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국)	